
 국토교통부	<h1>보도해명자료</h1>		 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9. 11. 25-26 부산
	배포일시	2019.11.22(금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철도정책과	담당자	·과장 김헌정, 서기관 이광민 ·☎ (044) 201-3940	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SR 통합 등은 종합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KBS, '19.11.21(목)) >

- ◆ KTX-SRT 통합 연구용역 비밀리 재개... 파업 해결 단초 되나?
 -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갑자기 중단한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음
 - 연구용역에서 통합이 더 효율적이라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확인

- 우리부는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*을 진행하던 중에, 오송역 단전사고('18.11), 강릉선 KTX 탈선사고('18.12) 등 주요 철도사고 발생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면서 연구용역을 잠정 중단('19.1)한 바 있습니다.

* “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연구” 용역('18.6~'19.3, 인하大)

- 연구용역을 중단한 사유는 ‘철도안전’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철도공공성의 핵심가치이므로, 안전 측면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산업구조를 진단·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
- 이러한 중단 사유는 국회(국정감사, 상임위회의)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차례 밝힌 바 있으며, 따라서 해당 기사의 “연구용역 중단의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”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.
- 감사원은 감사 결과('19.9)에서 철도안전은 안전 관련 인력·조직운영 등 구조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, 구조적 문제 전반에 대해 국토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적정성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.

- 이에 따라, 우리부는 철도안전 관리시스템과 구조적 진단 등에 관한 연구용역*(2건)을 진행 중이며, 각각 '20.2월과 4월에 용역 결과가 도출될 예정입니다.

* “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”, KOTI, '19.6~'20.2
“철도안전관리 조직·인력 개선방안 마련 연구”, 능률협회, '19.8~'20.4


- 우리부는 안전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반영하여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재개할 예정으로, 이러한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 역시 국회(국정감사, 상임위원회의) 등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.

- 현재 중단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을 논의 중으로, 구조개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 용역을 재개한 것은 아닙니다.

- 그 동안 이 용역에서는 어떠한 결론도 도출된 바 없으므로 “통합이 더 효율적이라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되었다”는 기사의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.

- SR 통합 관련 사안은 비단 철도운영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 이용자인 국민 전체의 이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,

- 안전 관련 연구용역(2건)의 결과가 도출이 되면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동 연구의 결과들을 충분히 반영하고, 철도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

 공공누리 권리지속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이광민 서기관(☎ 044-201-3940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